



선진국 경기회복과 금리 추세

이아름 연구원

■ OECD는 경제전망보고서를 통하여 2013년 2/4분기 선진국들의 경기회복세가 나타났으며 2013년 하반기에도 이와 같은 회복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함.

- 2013년 3/4분기 미국 경제성장률은 전분기와 동일한 2.5%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4/4분기에도 2.7%를 기록하여 회복세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함.
- 유럽 주요국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3개국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2013년 2/4분기 1.6%를 기록하여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났으며, 3/4분기 1.3%, 4/4분기 1.4% 성장할 것으로 전망함.
- 유럽 경제가 전반적으로 경기침체에서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면서 5월에 발표하였던 일부 국가들의 2013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조정함.
 - 독일은 0.4%에서 0.7%로, 프랑스는 -0.3%에서 0.3%로, 영국은 0.8%에서 1.5%로 상향조정함.
- 일본 경제성장률은 일본 정부의 경기부양을 위한 설비투자과 공공투자 증가에 힘입어 2013년 2/4분기 연율 기준 3.8%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2013년 8월에 발표한 속도치 2.6%에 비해서도 1.2%p나 높아진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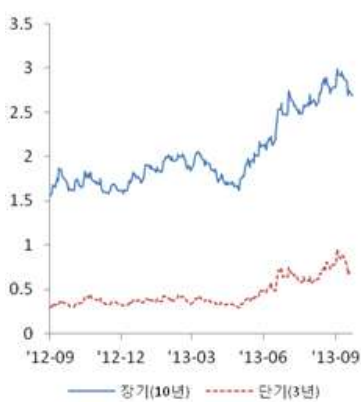
■ 특히, 유로존 재정위기의 시발점이었던 그리스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 그리스 경제에서 20% 비중을 차지하는 관광산업이 2013년 5월 누적 기준 15.5% 성장하였으며, 수출도 전년동기대비 0.9% 증가함.
- 그리스 통계청(ELSTAT)은 2013년 2/4분기 경제성장률이 -3.8%를 기록하여 1/4분기 -5.6%에 비하여 1.8%p 개선되었다고 발표함.
- EU와 IMF는 2013년 그리스 경제가 -4.2%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는 한편, 2014년에는 0.6% 성장하여 경제성장률이 플러스 전환될 것이라고 전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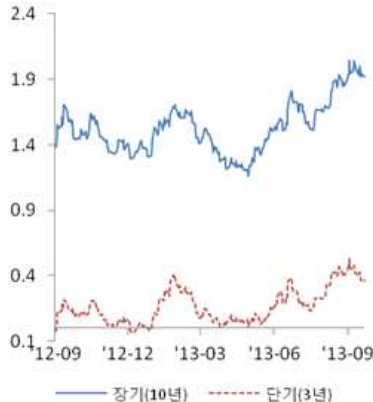
■ 주요 선진국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여 장단기스프레드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선진국 경기 회복의 신호라 판단할 수 있음.

- 미국, 독일, 영국 등 각 국의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2013년 초 대비 각각 0.9%p, 0.6%p, 1.1%p 상승하였음.
- 장기 금리 상승으로 장단기 스프레드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장기 금리 상승은 경제주체들의 향후 경기회복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됨.
 - 미국, 독일, 영국 등 주요 선진국 10년 만기와 3년 만기 국채금리 차이가 2013년 초 대비 각각 0.6%p, 0.2%p, 0.6%p 확대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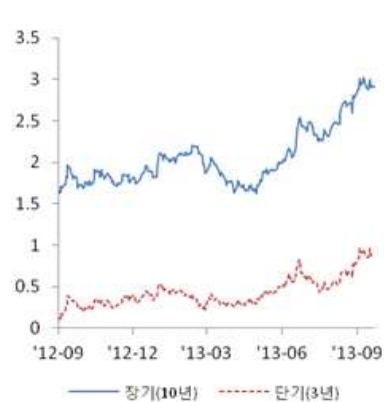
〈그림 1〉 미국 장단기 국채 금리



〈그림 2〉 독일 장단기 국채 금리



〈그림 3〉 영국 장단기 국채 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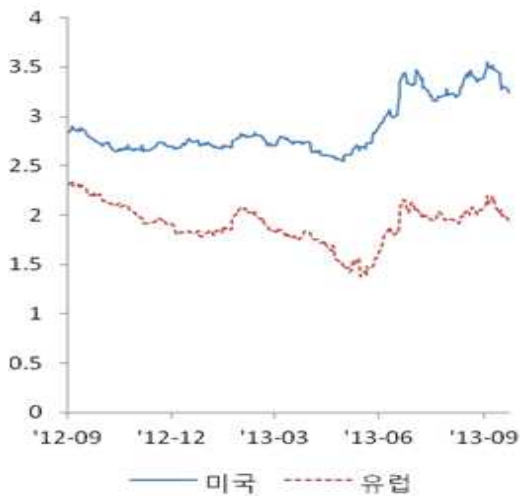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 특히, 미국의 경우 국채 수익률 상승과 더불어 회사채 수익률 및 High-yield채권 수익률이 상승하고 있어 기업들의 투자 확대가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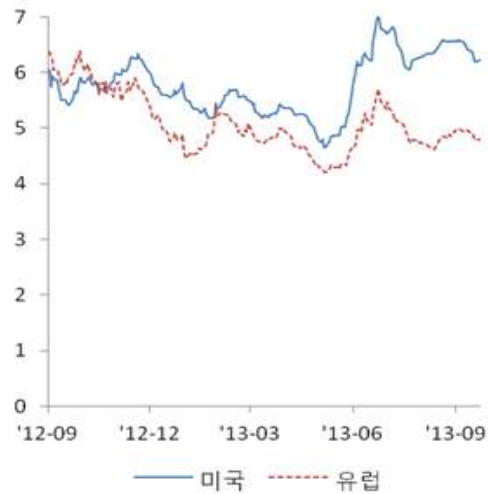
- 미국 회사채 금리와 High-yield채권 금리가 2013년 초 대비 각각 0.5%p, 0.4%p 상승하였음.
-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에 따르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하락세를 보였던 비금융 분야 기업의 차입액은 2010년 상승세로 전환되어 2011년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으며, 2013년 1/4분기 역대 최고 수준인 12조 9천 억 달러까지 증가하였음.
- JP모간체이스는 투자 등급을 받은 기업들의 레버리지가 2010년 대비 20% 늘어났다고 언급하였으며, 9월 11일에는 미국 최대 이동통신사인 버라이즌이 490억 달러 규모의 회사채 발행에 성공함.

- 유럽의 경우도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출구전략에 따른 금리인상 이전에 안정적인 자금을 확보하려는 수요가 늘어나 회사채 발행이 증가하고 있음.
- 골드만삭스는 유럽의 경기회복과 투자자 신뢰개선 노력에 힘입어 미국 기관투자자들이 650억 달러의 유럽 자산을 매입하였다고 발표함.
 - 경제연구소 Sentix는 유로존의 9월 투자자신뢰지수(investor confidence)가 8월(-4.9)보다 상승하여 6.5를 기록하였다고 발표함.
- 블룸버그에 따르면 유럽의 회사채 발행 규모는 2013년 9월 26일 기준 9월 동안 발행된 회사채 발행건수는 610건, 발행규모는 1,858억 달러를 기록함.

〈그림 4〉 미국과 유럽 회사채 금리



〈그림 5〉 미국과 유럽 High-Yield채 금리



자료: Bloomberg.

- 선진국의 장기 국채 금리 상승과 기업의 회사채 발행 확대 등으로 향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향후 우리나라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우리나라 수출 비중이 큰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경기 회복이 가시화될 경우 우리나라 경기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반면 국내기업의 부채 조정은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해 보임.

(OECD, FT 등)